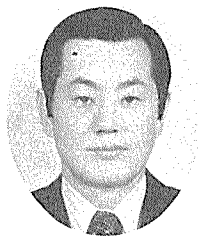


80年代의 世界經濟와 石油情勢의 變化



白 永 勳

(韓國産業開發研究所 副會長·經博)

1. 序 言

國土가 협소하고 國內賦存資源이 빈곤한 우리나라는 앞으로 80年代의 經濟發展過程에서 가장 큰 制約條件을 에너지 資源에서 받게 될 것이며, 그중에서도 국제적인 石油情勢의 變化가 成長變數의 가장 큰 隘路要因으로 대두하게 될 것이다. 이와같은 관점에서 80年代의 石油危機時代에 대비하여 國際經濟情勢의 變化 특히 세계적인 緊張要因을 加速시키고 있는 國際石油情勢의 變化에 대하여 새로운 종합적인 分析이 필요하며, 原油價格의 변동과 中東情勢에 관한 豫測등 보다 더 장기적인 眼目에 입각하여 對應戰略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本稿에서는 지난 70年代의 國際石油波動以後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世界經濟의 현황과 앞으로의 問題點을 검토하고 특히 世界的 不安要因을 加速시키고 있는 國際石油事情의 전망과 우리나라가 갖추어야 할 中·長期的 戰略과 課題에 대하여 問題를 提起하고자 한다.

2. 80年代의 世界經濟와 에너지 需給전망

최근 世界的으로 著名한 經濟研究機關에서는 이른바 「콘드라·체프」(Kondratief, N. D.) 經濟循環曲線에 관한 연구를 새롭게 전개하고 있다. 즉, 오늘날 世界가 직면하고 있는 經濟不況은 과연 지난 70年代의 石油波動이후 나타난 일시적인 景氣不

況의 현상이나 또는 그렇지 않고 世界經濟의 構造的 不均衡에서 오는 장기적 恐慌局面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慎重한 分析을 거듭하고 있다. 지금까지 나타난 대체적인 研究結果에 따르면, 지금의 世界的 不況은 비록 그것이 70年代의 2次에 걸친 石油波動에서 연유되었다 하더라도 그 深層에 있어서는 資本主義經濟의 構造的 不均衡에서 오는 長期波長의 下降局面을 나타내는 시기로서 적어도 80年代의 上半期동안에는 世界經濟情勢에 어떠한 특별한 與件變化(例를 들면 대폭적인 軍備縮小會談의 성공)가 없는 限, 50年을 周期로 하는 「콘드라·체프」曲線의 下降波長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같은 長期循環理論에 입각한 經濟不況要因을 다음 다섯가지의 制約性을 제시하고 있다. 卽 첫째는 과거의 好況을 지배하여 온 独占資本主義下的 超過利潤時代의 終末이고,

둘째는 「마스·프로」를 誘發하여 온 新技術創造力의 停滯性이고,

셋째로는 大衆消費時代의 消滅이며,

넷째로는 社會福祉負擔의 過重現象이고 끝으로 世界經濟秩序를 이끌어 온 經濟主導力의 약화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확실히 오늘의 세계경제의 不況이 構造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第2次世界大戰 이후 世界秩序를 지탱해 온 IMF, GATT 体制의 붕괴로 始作된 國際通貨制度의 파괴와 71年 「닉슨·쇼크」라 불리는 金과 달러貨의 교환이 停止

□ 新春論壇 □

된 後 이른바 「스미소니언」體制가 출항하고, 그 後 얼마되지 않아 變動換率制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마침내 1973年 가을에는 第4次 中東戰爭에 이어 第1次 石油波動을 惹起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先進國을 위시한 世界各國은 世界經濟의 不況에 대비한 강력한 긴축政策을 실시하기에 이르렀고, 그 余波가 新保護貿易主義의 대두등 19世紀末에 있었던 강력한 自國利益主義原則에 되돌아가게 된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60年代의 好況時代로 부터 先進國을 중심으로 한 經濟社會에서는 여러가지 側面에서 成長의 硬直化 現象이 나타나기 始作하였고, 特히 賃金이 生産性과 관계없이 상승하였고 産業構造의 進전이 停滯現象을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構造的인 失業이 발생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政府機能이 극도로 肥大하여 온 가운데 自由經濟가 지나야 할 市場調節機能이 阻害되면서 財政赤字요인이 누적되고 마침내 惡性的인 財政인플레이의 현상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같은 諸要素를 보았을 때, 앞으로 80年代에 있어서의 世界經濟는 79年以後의 構造的인 不況局面에서 크게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으로 이와같은 世界經濟의 전망에 따라 앞으로의 國際「에너지」의 需給實態와 展望을 넘어다 보고자 한다.

1980年의 世界 에너지 소비량은 石炭換算 年間 120億噸으로서 30年前인 1950年의 25.2億噸에 비해 約5倍의 규모로 확대 되었다. 즉 50年代에 있어서는 年平均 5.3%, 60年代에는 4.9%씩 그 消費가 增加 하였는데 이러한 世界에너지 소비량의 급진적인 增大는 2次大戰後 各國에서의 工業化進展과 生産水準向上에 크게 緣由된 것이다.

그런데 同期間中 全世界의 GNP성장율은 5.3%로 50年代 및 60年代의 에너지消費를 세계적으로 볼 때, GNP 伸張率과 거의 동일한 程度로 증가하는 正相關性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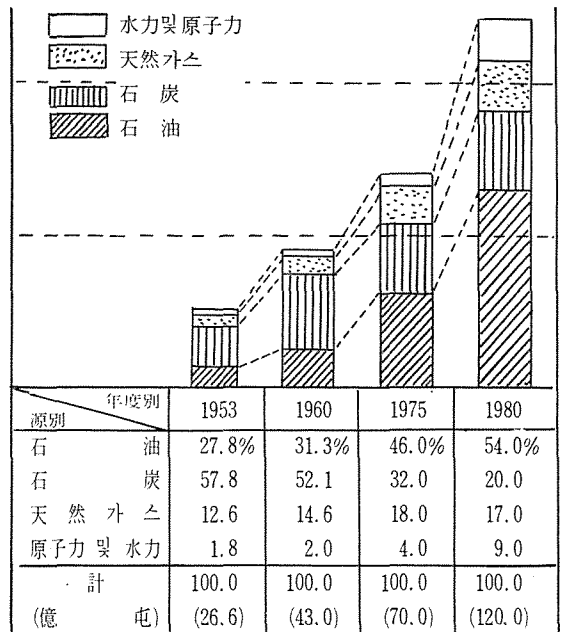
그러나 70年代에 있어서 에너지 소비는 더욱 더 增大하였다. 즉, 1970年의 70億噸에서 1980년에는 120億噸으로 증가되어 이것은 지난 10年間 每年 5.5%씩 世界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났다는 것을 뜻하게 된다.

이제 지역별로 현재의 消費規模를 보면 北美가 世界 에너지 消費의 3분의 1, 共產圈이 4분의 1,

西歐가 5분의 1, 아시아·大洋洲가 10분의 1을 각각 소비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地域別 消費패턴은 比率面에서 北美가 약간 減少하고 아시아·大洋洲가 多少 증가하겠지만 대체로 보아 1990年代 까지 그러한 추세는 연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次大戰後 이와같은 世界 에너지의 絕對消費量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그 需要構造面에서도 이른바 에너지 革命이라 불리는 급격한 구조변화가 일어났다. 1953年 世界 에너지 需要에서 石炭이 차지하는 비중은 57.8%를 점하는 압도적인 위치에 있었으나 1975년에는 31.0%로 比重이 크게 減少된 反面에 石油는 1953年의 27.8%에서 1975년에는 46.0%로 급격히 그 比重이 증가되고 있다. 天然가스도 1953年의 12.6%에서 1975년에는 18.0%로 確實한 比重增大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패턴變化는 대체로 1980年代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天然가스는 量的인 증가에 비해 그 비중은 크게 增大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石炭의 비중은 1970年에 비해 相對的으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대신 世界 에너지 需要構造上 石油와 原子力의 비중이 확대될 것이나 그 중에서도 특히 原子力의 비중이 增加할 것으로 予想된다.

世界에너지 需給構造변화



註) 実績은 U.N. World Energy Supply 依拠換算

따라서 금후의 세계 에너지 需要構造에서 불매 石油의 지위는 계속 높아져 에너지 需要의 主宗을 이룰 것이지만, 石炭의 지위 후퇴는 世界的으로 보아 明白해지고 있다. 그리고 天然가스는 그 利用에 있어서 輸送上의 제약이 해소되지 않는한, 그 消費의 지역적인 한계성을 가지고 있으며, 原子力은 장기적으로 코스트 低下가 기대되지만 현재로서는 初期 投下資本의 負擔規模, 核燃料 確保問題등 으로 開發이 本格化되지 않고 있는 상태라 하겠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世界的 중요한 1次 에너지源은 石油·石炭·天然가스·原子力등이지만, 특히 向後 10~20年間은 계속해서 石油가 主宗에너지源으로 사용되는 이른바 「石油時代」가 지속할 것으로 判斷된다.

그러나 그 需要面에서 보아 美國과 소련을 제외하고는 原油의 生産地와 消費地가 地理的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여러가지 問題가 발생되고 있는 바, 특히 西歐와 아시아 地域에 있어서는 小量의 域內生産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需要의 大部分을 充足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西歐의 原油 不足分을 中東 및 아프리카原油로 충당해 왔으며, 極東에 있어서 原油 不足分은 中東原油로 供給받아 왔다. 그러나 美國에 있어서 石油輸入 依存度의 增大, 中東紛爭, OPEC 攻勢등 70年代에 들어오면서 나타나고 있는 國際石油危機현상은 앞으로 용이하게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속에서 우리나라 資源政策上 커다란 課題는 이처럼 앞으로 급격하게 增大될 것으로 전망되는 資源需要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集約되고 있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資源需要가 급격한 增大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資源供給의 不安定性은 앞으로도 지속될 公算이 크다. 資源의 不安定性은 根本的으로 賦存資源의 한계성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특히 資源賦存의 地域的 偏在性으로 1970年代 이후 進진된 資源내셔널리즘의 高潮와 資源保有國의 블럭化 불확실한 產油國의 생산 및 價格政策등이 加勢될 징후를 보이고 있다.

첫째, 資源의 한계성은 커다란 과제이다.

原油, 鐵鉍石, 亜鉛등 大部分의 大容量資源은 可採埋藏量이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再生産 마저도 어렵다. 특히 原油는 需要의 급격한 增大에도

不拘하고 世界的 窮極的인 可採埋藏量이 약 2兆 B/D이며, 앞으로 새로운 에너지의 代替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現在 確認된 埋藏量 6,600톤B/D은 40余年 이후 枯渴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는 새로운 油田에서 1兆B/D의 原油를 채취할수 있을 것으로 推定되고 있으나, 그것도 불확실하며, 점차 原油의 需要가 大規模化될때 새로운 에너지 危機의 가능성을 충분히 점칠수 있겠다. 대부분의 產油國들은 可採年數가 줄어들수록 生産의 감축, 價格의 引上을 시도할 것이며, 그 결과 非產油國에 대한 原油의 공급은 더욱 불안정하게 될것이다.

둘째, 石油資源의 偏在性 또한 커다란 課題가 아닐수 없다. 世界資源供給構造의 特性은 資源의 賦存이 특정지역에 偏在되어 있으며 특히 中東地域은 자유세계에 있어서 總石油生産量의 44~46%를 차지하고 있으며, 확인매장량에 있어서도 56%나 되고 있다.

中東地域 이외에도 原油生産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 量은 극히 制限되어 있는 상황으로 향후 數年동안 石油資源의 供給은 中東지역이 主導할 것이다. 셋째 불확실한 產油國의 政策이다.

石油資源의 供給側 制約要因은 中東產油國에서 生産한 原油의 世界市場 占有率이 높음에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原油의 높은 市場支配力으로 中東產油國들은 끊임없이 生産의 制限, 價格의 引上을 추구하고 있다.

中東產油國의 경제적 및 정치적 地位 向上이 이루어지면, 資源民族主義化는 더욱 進진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資源保存政策까지도 동원하게 될것이다. 특히 資源保存을 위한 OPEC 諸國, 그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의 生産政策은 80年代 이후 原油供給의 불안정성과 직결되는 요인이 된다. 더욱이 보다 활발하게 대두될 南北問題와 팔레스타인問題 및 產油國間의 갈등 등 여러가지 국제정치적 問題는 原油의 供給面에서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다음으로 에너지 資源의 脚光을 받고 있는 天然가스의 需給實態를 보면, 現在까지 天然가스는 供給過剩狀態에 있으며, 앞으로도 需給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天然가스는 그 自体로서는 輸送 및 貯藏에 문제점이 많아 대부분 燒

却 내지 자체소비가 되고 있으며, 일부는 液化處理 되어 利用되고 있으며 그 價格도 最近 '나프타' 또는 LNG에 比하여 顯著히 低下되는 傾向을 나타내 앞으로는 天然가스의 生産과 消費가 增大될 전망이다.

3. 國際石油情勢의 變化

第4次 中東戰爭을 계기로 第1次 石油危機는 中東產油國에 대해서는 歷史的인 사건임과 同時에 60年代 高度成長의 果實을 享有하여온 先進工業國에 대해서도 經濟구조를 變革시켜온 역사적 衝擊을 받은 계기가 되었다. 이와같은 危機는 石油에 對한 人類의 인식을 새롭게 하였고 後 世界經濟는 「이란」 革命을 통하여 第2의 石油危機의 영향에 있으며, 앞으로 더욱 사태의 變化에 따라서는 最近의 中東戰爭 가능성에 따라 第3의 石油危機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80年代의 石油情勢를 預測함에 있어서는 먼저 지난 第2次 石油危機의 結果가 세계석유 市場에 對하여 어떠한 影響을 미치게 하였는가 에 對한 分析에서 부터 着眼할 需要가 있다. 지난 2次 石油危機는 結果的으로 ① 石油의 流通革命 ② 石油에 對한 知識革命 ③ 石油管理革命의 세가지의 重要한 變化를 가져왔다. 먼저 第1의 變化로서의 流通革命은 原油의 生産단계에 있어서 價格과 量의 決定權과 所有權과의 革命的 變化를 가져오게 하였다. 여기에서 나타난 重要한 變化는 지난날과 같은 「매크로」(巨視)的 需給關係가 아니고 「마이크로」(微視)的 制度的 側面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란政府가 과거의 「콘소지움」을 解体하고 原油를 消費國政府 또는 企業에게 직접판매하는 流通政策을 내세우게 되었다. 이와같은 政策은 「앵그로·페르시아」석유시대에 利權을 獨점하여온 歐洲系의 B.P나 「셀」등 과거의 石油財閥에 對한 破産의 위기에 까지 몰고오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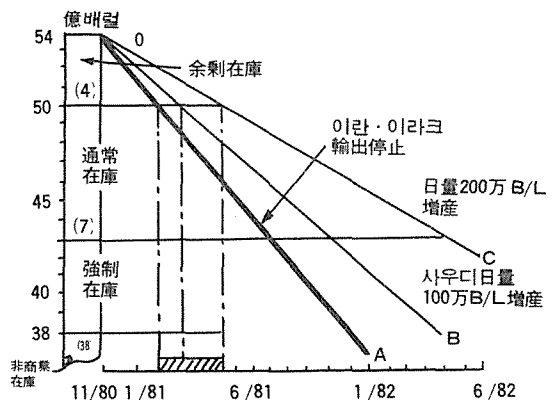
第2次 石油危機에 의한 第2의 變化는 知識의 革命으로서 產油國側에서 볼때 原油去來에서 얻어진 유익한 知識과 「노우·하우」를 통해서 經濟的 利用에 對한 새로운 方法을 得게 한 것이다. 卽 이들 產油國들은 短期的으로 供給操作을 통해서 최대의 利益을 追求하고자 하는 努力을 集中시켰다.

그 結果로 나타난 影響은 다음 네가지로 集約될 수 있다. 卽, 첫째는 이른바 現物市場(Spot Market)에 對한 產油國의 진출, 둘째는 直接去來 原油의 增大, 셋째는 價格「프리미엄」制의 導入과 넷째로는 產油國側에 유리한 去來制度의 확립등 이른바 產油國에 매우 有利한 販賣方法이 展開될 수 있었다.

第3의 革命은 產油國의 石油市場에 對한 管理革命으로서 產油國은 메이저들의 助力이 없이도 獨自의 힘으로 世界市場에서 販賣할 수 있는 力量을 획득하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石油生産量의 조작을 통해서 石油價格을 결정하고 國際市場에 있어서의 支配力을 과시하고 方便과 武器를 理解하게 되었다.

아름든 지금까지의 變化에서 볼때, 石油危機의 성격에 對한 構造的 分析위에서 볼때 80年代의 石油情勢는 앞으로 더욱 深刻한 不安要素를 內包하면서 波亂曲折이 예상될 수 있다. 따라서 消費國의 立場에서 볼때, 第3, 第4의 石油危機의 發生에 對비한 積極적인 態勢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卽 第3, 第4의 石油危機가 어디서 어떠한 形態로 發生하게 될런지는 아무도 預測하기 어려운 狀況에 있다. 最近 日本 野村研究所등 著名한 연구기관 의 調査에 따르면, 原油價格은 비록 最近에 多少 안정된 추세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3年後인 1985년에는 배럴당 58달러水準에 까지 上昇될 것으로 보고있다. 勿論 이와같은 價格預測이 正確한 것인

世界석유비축량의 減少傾向



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論難이 많겠으나, 아문든 國際石油需給面에서 볼때, 價格의 급격한 上昇 추세는 否認할 수 없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추세의 特徵은 다음 表에서 보는 바와같이, 최근 石油波動以後 世界的인 石油備蓄狀況에서 볼때 各國은 점차로 備蓄量을 감소하는 傾向이 급격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또다시 供給不足에서 오는 石油波動의 余地를 나타내는 것으로 分析되고 있다.

結論적으로 말하면, 現在의 石油剩餘재고량은 82 年에 거의 없어지게 될 가능성이 많으며 需給關係에서 볼때 이때가 되면 原油價格의 上昇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할것이 當然하다. 이와같은 需給構造上的 不安要因을 內包한채 中東戰爭의 새로운 危機 등 國際政治圈의 변화는 앞으로의 石油情勢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할것이 當然하다고 하겠다.

4. 우리나라 石油産業의 展望과 對策

앞으로 經濟의 高度成長과 重化學工業의 進전에 따라 資源需要는 급격하게 增大될 것이다. 특히 重化學工業의 발전으로 資本集約度가 높아질 것이며, 國民生活水準의 향상에 따라 에너지의 家計需要도 더욱 增大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 동안 우리經濟는 高度成長을 지속하는 가운데

資源의 소비가 급격하게 伸張되어왔다. 오히려 GNP 成長率은 年平均 10% 水準이었으나, 資源의 消費水準은 年平均 27%라는 높은 增加추세를 보일 정도였다.

앞으로 우리나라 經濟가 實質成長率 9%의 水準으로 維持되고 이러한 성장추세속에서 重化學工業化가 進전될 때, 資源의 需要는 급격하게 增大될 것이다. 1991년에는 石油 1.3億噸(無煙炭 換算), 有煙炭 5,700萬噸으로 예측할수 있으며, 그로 因하여 에너지의 海外依存度가 75% 수준에 까지 이르게 될것이다.

따라서 GNP에 대한 輸入依存度도 심화되어 總輸入中 輸入原資材 依存度는 1976년에 이미 54%에 이르고 있다.

鐵鉍石, 銅鉍石, 原木, 原綿등의 需要도 크게 늘어날 것이며, 이러한 資源의 해외의존도가 80~100%의 수준에서 커다란 變動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때 만일 資源의 안정적 확보가 불확실하게 되면 資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우리와 같은 國家의 경우 經濟의 成長과 安定을 가로 막게 될것이다.

우리의 現狀은 豊富·低廉·安定 등 에너지 政策의 要件을 골고루 滿足시킬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國民經濟상 어떤 資源의 量的不足이 經濟組織의 붕괴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인식을 새롭게

主要資源의 需要 및 輸入依存度

品 目	單 位	需 要 量			輸 入 存 依 度 (%)			
		1976	1977	1981	1976	1977	1981	
에너지資源	石 油	千 巴 剎	138,076	152,999	240,371	100	100	100
	有 煙 炭	千 M / T	1,743	2,249	4,586	0	0	0
	우 라 늄	M / T	278	212	822	100	100	100
鉍 物 資 源	鐵 鉍 石	千 M / T	3,016	4,280	8,930	75.1	80.8	86.6
	銅 鉍 石	"	172	201	774	89.5	89.6	95.1
	알 루 미 늄	"	36	36	270	100	100	100
	古 鐵	"	1,820	2,253	3,720	74.2	75.2	75.2
工 產 資 源	原 木	千 m ³	7,031	7,966	9,920	82.8	83.5	84.8
	原 糖	千 M / T	302	366	379	100	100	100
	原 毛	M / T	13,639	22,600	29,600	100	100	100
	原 綿	千 bl	941	1,100	1,550	100	100	100
	天 然 高 무	千 M / T	67.0	74.0	97.8	100	100	100

資料 : EPB 第 4 次 經濟開發 5 個年 計劃, 資源 및 「에너지」 部門計劃 (1977~1981)

해야 할 것이다. 安定性を 우선적 政策課題로 하는 가운데 他要件은 어느 정도 범위내에서 희생해야만 할 狀況이 오늘의 現實이기도 하다.

따라서 不意의 에너지供給 削減 또는 中斷의 가능성을 減少시키고 또 어떤 경우에도 국가경제 및 國民에 미치는 영향을 最小한으로 억제할수 있도록 에너지의 安定供給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安定供給의 확보를 위해서 必要에 따라서는 經濟効率에 의한 경제적 費用에 추가적으로 安定供給의 비용 概念에 의하여 정책의 理念을 재정립해야 한다.

또 한편으로는 国内賦存資源이 극히 貧弱하고, 原料材의 해외의존도가 높은 점은 경제규모의 擴大와 더불어 우리 經濟의 가장 큰 脆弱要因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아직도 우리는 海外資源의 확보를 위한 開發輸入 能力이 갖추어 있지 못하였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때, 海外進出 확대에 따른 現地能力의 必要性이 增大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이르러 확대되고 있는 建設人力 진출을 통한 해외진출과 技術, 그리고 경영의 累積을 통해서 본격적인 開發輸入體制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음으로 資源管理의 効率化를 위해서는 生産, 流通, 輸送과 保管을 포함하는 전반적인 管理 시스템의 革新을 前提로 하고 綜合的인 資源物動의 最適化計劃이 수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선 海外資源의 輸入을 円滑化하기 위해서는 港灣荷役施設의 近代化, 大型輸送船의 확보, 貯藏種目的 정비등 그 管理體制를 크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 国内 輸送體制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政策이 필요하다. 협소한 国土構造 안에서 石油, 肥料, 시멘트, 無煙炭, 糧穀輸送物資등 大容量物資가 아무런 종합적인 管理시스템이 없어 막대한 輸送燃料의 낭비와 非效率的인 輸送過密化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管理體制의 未備는 經濟的인 측면에 있어서의 낭비일뿐 아니라 國家輸送體系의 혼란성 면에서도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안된다. 物的流通의 合理化가 시급하며 유통과정에서 막대한 資源의 손실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통기관의 정비와 流通마진의 적정화를 기하여 需給調節 機能을 확립함으로써 流通上의 혼란을 排除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供給의 主役을 맡을 에너지産業의 육

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必要하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는 資源의 備蓄을 확충하여야 한다. 73年の 中東戰爭과 같은 우발적인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安保的인 차원에서 資源의 備蓄은 불가피하다 하지 않을수 없다. 短時日內에 先進諸國과 같이 60日~90日分을 備蓄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가장 중요한 資源부터 시작하여 品川과 備蓄量을 점차 확대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戰爭 발발이나 完全保護무역정책에의 轉換에 대비하여 國家存立과 國民生活에 필수적인 戰略資源 및 戰略資源材 등의 最少 所要量만은 国内에서 공급할수 있는 體制構築이 바람직 하다.

또한 產油國 또는 產油國과 合作으로 南海岸지역에서 CTS를 誘致하여 物理的으로 物資를 이 地域에 保有케 함은 石油安全 확보 및 國防次元에서도 意義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연구해야 할 것이다.

5. 맺는 말

우리나라 石油産業은 80年代 국제경제의 不況局面의 深層에서 構造的 轉換期에 들어서고 있다.

石油産業의 上流系列(Up-Streams)과 下流系列(Down-Streams)이 共히 심각한 不況局面에서 구조적 變革過程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天然가스의 量産開發體制에 따른 既存 석유산업의 供給體系가 송두리채 위협받 받고 있는 심각한 양상을 엿보이게 하고 있다. 「다운·스트림」으로서의 石油化學工業은 存立의 위기에 까지 직면하게 되었다. 萬一 石油化學工業이나 肥料工業이 스크랩 되었을때, 「나프타」 需要는 激減하고 石油産業은 經營面에서 심각한 局面을 맞이하게 될것이 당연하다. 原油價格面에서도 비록 최근에는 세계경제의 不況에 따라 安定된 추세에 놓여 있기는 하나 근본적인 中·長期 需給構造面에서 볼때, 第3次, 第4의 波動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不安要素가 뒤따르고 있다. 특히 최근에 더욱 不安要素가 확대되고 있는 中東戰爭의 심각성이나 「폴란드」사태를 중심으로한 美·蘇 대립관계의 惡化등 國際政治面에서도 過去 어느때 보다도 不安要素가 加速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와같이 石油産業을 둘러싼 對內外的 環境에서 볼때 우리나라 석유산업은 全面的인 構造 改編과 中・長期的인 眼目에 입각한 構造體質의 轉換이 切實히 要請되고 있다.

이와같은 點에서 石油産業의 當面한 不況局面과

危機時代에 대비하여 政府와 業界 그리고 學界는 共同努力에 의하여 石油産業 構造審議會와 같은 公式的인 委員會를 設치하고 構造轉換期에 필요한 價格安定 基金의 運用등 보다더 積極적인 對應姿勢를 갖추어 나가야 할것이다. *

□ 海外石油動向 □

사우디產油量중 PETROMIN引受分, 82년에는 38%線까지 增加전망

사우디 아라비아의 国营石油会社인 PETROMIN 이 自國의 產油量中 G-G베이스 輸出量을 비롯 其他 國內 精製用으로 引受하는 物量과 占有率은 今年에는 지난해보다 더욱 增加할 것으로 予想되고 있다.

PIW紙가 最近号에서 予想한 바에 따르면, 사우디가 最近 그들의 原油生産 上限線을 減縮 시켰기 때문에 總產油量 中 今年 PETROMIN의 引受分은 지난해 29%에서 거의 38%線으로 增加할 것이라고 내다 보았는데 이것은 相對的으로 ARAMCO 美国 持分 会社들의 引受分이 減少되는 것을 의미하는

〈PETROMIN의 G-G原油계약〉

(單位: 千b/d)

國 別	物 量	國 別	物 量	國 別	物 量
오스트리아	40	방글라데시	15	바 레 인	100
벨 기 에	100	印 度	25	요 르 단	36
덴 마 크	20	日 本	210	레 바논	20
핀 랜 드	40	말레이시아	10	시 리 아	26
프 랑 스	240	파 키스탄	20	수 단	23
그 리 스	65	필 리 핀	30	자 이 레	10
에 이 레	10	韓 國	50	아 프 리 카	50
이탈리아	200	스 리랑 카	25	아르헨티나	32
스 케 인	240	台 灣	50	브 라 질	50
루 마 니 아	10	泰 國	65	計	2,078
터 어 키	50	總 計	40		
西 獨	186				

것이다.

더군다나 야마니石油相이 최근에 言及한 것처럼, 사우디가 市場与件上 追加 減産을 斷行한다면 PE-TROMIN의 占有率은 더욱 커질것으로 予想된다.

同紙는 또 物量面에서 G-G 판매物量이 210萬b/d까지 增加되어 82년에 PE-TROMIN이 引受할 總物量은 지난해보다 約45萬b/d가 늘어난 320萬b/d에 達할 것으로 予想했다.

사우디의 G-G 販賣物量은 現在로선 安定된 價格等 유리한 條件이 많아 大部分의 消費國 国营石油会社들이 이 구매方法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210萬b/d 水準에 未達하지는 않을 展望이다.

PIW紙가 集計한 PETROMIN의 G-G 原油 契約 狀況은 다음과 같다.

한편 Aramco의 現 石油産業 上限線 850萬b/d는 今年 PETROMIN의 予想 引受量을 제외하면 EXXON을 비롯한 Texaco, Socal, Mobil等 美国의 ARAMCO 持分会社가 引受할 物量은 1981年 平均引受量 680萬b/d보다 150萬b/d가 적은 530萬b/d만 남게 된다.

그러나 만약 사우디가 700萬b/d까지 產油量을 減縮시킨다면 이 量은 400萬b/d以下로도 줄어들 수 있다.

아래표는 PIW紙가 集計 및 予想한 지난해와 今年의 PETROMIN과 ARAMCO 持分会社들의 原油 引受量이다.

PETROMIN引受量	81年	82年	ARAMCO引受量	81年	82年
G-G 판매	1,700	2,100	產油量 9,600萬b/d일때	6,850	...
戰爭不足増産	200	—	“ 8,500萬 “(현재)	...	5,300
인센티브原油	100	250	“ 8,000萬 “	...	4,800
국내정제/소비	600	750	“ 7,500萬 “	...	4,300
海外정제	100	100	“ 7,000萬 “	...	3,800